당·청 "공수처 설치 위해 특별감찰관 미룬다"

"법안처리 집중할 시기"…한국당 반대 고수에 험로 예고

공수처 가시화 땐 특별감찰관 폐지 검토…장기 공석 불가피

청와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검찰개혁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공수처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일단 보류한 것이다. 나아가 공수처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특별감찰관 제는 폐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특별감찰관은 수사 권한 등이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당청의 이런 '선(先) 공수처·후(後) 특별감찰관 문제 논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특별감찰관제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24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6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포청천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 8월 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빚으면서 현재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공수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당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 등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릴레이로 공수처 설치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나섰다.

당청이 이처럼 특별감찰관제 추천에 대한 입장까지 바꾸면서 공수처에 집중하는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청이 공수처 우선 관철 입장을 정함에 따라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비어 있다. 나아가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에 반대했던 한국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공수처는 옥상옥'이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여권의 공수처 신설법안 등의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 1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회 선진화법 등으로 인해 공수처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만약 공수처법 처리가 힘들다는 판단이 들 경우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하는 방향으로 여권의 입장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지경기자jkpark@·연합뉴스

제천 합동분향소 찾은 우원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 0건…결국 '빈손 국회'

다음달 9일까지 자동 연장…여야 갈등에 난제 산적

지난 22일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주요 법률안, 대법관·감사원장 인준안 등 산적한 의안 처리가 뒤로 밀려나게 됐다. 본회의 무산으로 12월 임시회 회기에 관한 의결도 이뤄지지 못해 23일 종료 예정이던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년 1월 9일로 자동 연장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밀린 주요 법안과 함께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4일 현재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단 한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빈손국회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월 임시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인 국민의당의 예산안 공조 처리에 불만을 품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시작부터 부분적으로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과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처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애초 개헌특위 활동 시한 연장 조건으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한국당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가 '2개월 연장'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이어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최종안을 내놨으나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고, 본회의도 자동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정하는 '회기 결정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로 자동연장됐다.

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법안도 있다는 점에서 내주에도 본회의 개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

복당파, 한국당 요직 속속 배치

김성태 원내대표·김용태 정무위원장 등 신주류 형성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온 복당파 의원들이 주요 당직과 국회직에 속속 전진 배치되고 있다.

대부분이 3선 이상인 이들은 최근 주요 당직부터 당협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요직을 두루 장악하며 빠른 속도로 당내 신주류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복당파 전진 배치의 신호탄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쏘아 올렸다. 그는 앞서 지난 12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예상을 뒤집고 결선투표가 아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선출됐다.

조만간 교체될 다수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복당파 의원들이 내정됐다. 우선 운영위원장의 경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정우택 전 원내대표에서 김 원내대표로 교체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역대로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었다는 점을 내세워넘겨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의 논의 또는 협상 상황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국방위원장은 현재의 김영우 위원장에서 김학용 의원으로, 정무위원장은 이진복 위원장에서 김용태 의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김용태 의원의 경우 홍 대표가 구상 중인 '당 제2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복당파 전진 배치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비홍'(비홍준표) 세력으로부터 '홍준표 사당화' 공세 또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대표는 비홍 세력 측의 공세를 당장은 크게 의식하지는 않고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2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지난 2년 8개월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성완종 리스트'의 굴레를 벗은 것도 정치적 자신감을 한 껏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김형호기자 khh@

문대통령, 내일 與 지도부 초청 만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24일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정기국회 폐회 이후, 청와대 오찬 회동 일정이 조율됐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고생했다는 격려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면 현안인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당청간의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오찬에는 우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단이 모두 참석한다. /임동욱기자 tuim@

"개헌투표 내년 연말 하자" 말 바꾼 한국당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빨간불…與 "여야 공통공약" 압박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던 '2018년 지방선거·개헌안 투표 동시실시' 방안이 자유한국당의 입장 돌변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과정을 갖고 연말께 개헌투표를 진행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회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있으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개헌안 발의를 3월까지 한다고 하면, 2~3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여야가 개헌 관련 막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관한 여야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을 내팽개쳐버리려 한다"고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을 동시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국회의장,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 개헌 논의는 걷어차 버리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그 기한을 특정하지 말자는 한국당 측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되레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때때로 언급하며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실시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맹비난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2018년 말 개헌투표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실시에 대해 "지방선거에 개헌을 연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곁다리 개헌 국민투표"라고 규정하면서 "청와대가 준비한 문재인 개헌안을 들고나오면 저희는 단호하게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6개월 연장돼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뒤 그 결과를 가지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만일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별도로 실시하면 그 비용이 1300억 원가량 드는 것은 물론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직접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맞출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3학년)	정원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oo	2018. 2. 6(화)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o	2018. 2. 6(화) 오후 2:40
	석사	신학과(Th.M.)	oo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o	2018. 2. 6(화)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o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o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M.S.W.)	o	
		평생교육학과(M.Ed.)	o	
국제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M.Ed.)	oo	
음악대학원		음악학과(M.A.)	o	
		실용음악학과(M.A.)	o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